

50 사람은 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생각한다

• 우리는 대개 마음과 신체에 관해 마음이 사령탑이고 신체는 그 사령을 받아 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은 주이고 신체가 종인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에는 그러한 연구의 일례로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주장한 ‘신체적 표지(somatic marker)가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 다마지오는 실험 대상자 엘리엇이 비참한 사고나 재해 사진을 봐도 아무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또한 병에 걸리기 전에는 무척 좋아하던 음악과 그림에 수술 후에는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사회적인 의사 결정 능력과 정동(情動, 분노, 두려움, 기쁨, 슬픔 등 비교적 급속히 일어나는 일시적이고 급격한 감정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사이에서 지금까지 간과해 온 중대한 연결 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웠다.

• 신체적 표지 가설에 따르면 정보에 접촉함으로써 야기되는 감정이나 신체적 반응이 뇌의 복내측 전전두피질 부분에 영향을 미쳐 눈앞에 주어진 정보에 관해 ‘좋다’ 또는 ‘나쁘다’의 판단을 도와 의사 결정의 효율을 높인다. 이 가설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의사 결정은 가능한 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상식은 잘못된 것이며 의사 결정을 할 때 오히려 감정은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야 한다.

• 신체적 표지 가설에는 많은 반론이 뒤따랐다. 현시점에서는 말 그대로 ‘가설’일 뿐이다. 하지만 다마지오가 자신의 저서[데카르트의 오류]에서 보고한 수많은 안타까운 병례는 우리에게 사회적인 판단과 의사 결정이 얼마나 복잡한 행위인지,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요인에 대해 직감적으로 고찰해야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오늘날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져서 논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오직 이지적이고 논리적이고자 한다면 오히려 큰 판단 실수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대이기에 다마지오가 주장한 신체적 표지 가설은 더욱더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